

건설산업 신속 대응반(TF) 운영

- 태영건설 건설현장 및 건설·PF 시장 신속 대응 강화, 건설산업 지원정책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고금리, 부동산 경기 위축, 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,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(12.28)으로 PF 시장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.
 -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안정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 등으로 건설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,
 - *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관계부처 회의(12.28, 금융위 보도자료 배포)
 -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등에 대비하여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·PF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.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, 주택팀, 토지팀, 유관기관(건설협회·공제조합·연구원 등)으로 이뤄진 신속 대응반을 구성하였다.
 - * (건설팀) 건설사·협력사 건설현장 등 관리, (주택팀) 수분양자·주택금융 등 관리, (토지팀) 비주택 사업, LH 지원 등 관리, (협회·조합·연구원) 업계의견, 건설보증, 시장·통계 분석 등 관리
 -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·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,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.
 - 아울러, 기재부, 금융위,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설업계와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,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, 신속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“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, 앞으로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PF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	이익진 (044-201-3504)
	건설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김태훈 (044-201-3507)